

- 지역 예술인과의 만남 -

# 지역은 또다른 비상구

- 일시 : 2006년 7월 7일(금) 오후 3시
- 장소, 후원 : 의재미술관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 지역문화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 차 례

### <포럼을 열며>

예술의 위기, 새로운 예술, 지역의 가능성 - 전효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 1부 : 지역과 새로운 예술

사회 - 전효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기조발제>

예술의 계보학, 지역 예술의 힘 - 이광준(예술경영지원센터 팀장)

지역과 새로운 예술 흐름 - 전고필(지역소위원회위원)

### <사례발표>

극단 노뜰 이야기 - 원영오(다원소위원회위원)

광주와 미술 - 윤남웅(화가)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 - 한보리(시하나노래하나 대표)

공공작업소 심심(公共作業所 心心)을 중심으로 - 김병수(공공작업소 심심 소장)

### □ 2부 : 지역예술인과의 만남

사회 - 박종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포럼을 열며>

예술의 위기, 새로운 예술, 지역의 가능성

전효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다원예술소위원회 위원장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01. 예술의 위기

에릭 홉스봄은 ‘예술 시장’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우리 현실에서도 예술의 실현 위기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화의 세기라는 요란한 구호가 존재하지만, 창작 현장의 붕괴는 아주 심각하다. 예술은 예술가 커뮤니티 안에 갇힌 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좀처럼 만나지 못한다.

최근의 한 토론회에서 방현석은 기초예술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기억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의 기억력은 문학의 바깥으로 번져나가지 않는다. 연극은 시로부터 모국어의 마술을 선물받지 못한다. 인문학은 소설로부터 당대에 대한 영감을 얻지 못한다. 문학은 자신의 가치에 합당한 소통의 규모를 지닌 매체를 상실한 채 내부자 거래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내부자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는 문학은 이제 그 근친상간성의 결과로 인하여 더 이상 유전자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문학, 연극, 음악, 무용 등 전통적 장르의 위기는 시대 변화가 초래한 관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예술인 교육은 낡은 대학제도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고, 예술은 고착된 장소에서만 연주되거나 전시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예술 내부의 실험적 시도는 이단적인 움직임으로 배척되기 일쑤이다. 예술은 매체 환경의 변화, 관객의 변화 등과 같은 예술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자기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을 산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02. 예술과 사회라는 테마

내가 예술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존의 전통적 장르를 옹호하거나, 직업인으로서 예술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한 예술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시킨 채 예술적 활동의 필요성을 강변하거나 예술가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편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예술이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하고, 예술가가 사물과 인간관계의 숙고된 표현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성을 강조하고 싶을 따름이다.

예술은 풍부한 은유작용과 인격작용을 통해 사물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던질 수 있고, 그 결과 새로운 다른 미래를 꿈꾸는 힘으로 작동한다. 건조한 정치적 계몽주의로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열정을 주조해낼 수 없으며, 냉혹한 경제적 논리로는 공동의 미래를 설계할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개개의 삶을 추하고 궁핍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기에 정치적 사건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문화적 과정의 설계만이 새로운 꿈을 형성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아직도 문화적 낙후의 증상을 광범위하게 경험하고 있고 관계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예술은 그 시대적 역할을 마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재확인해야 할 시점이다. 문화와 예술이 삶을 지탱하고 풍부하게 하는 삶의 실체를 유지하는 것이며, 우리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의지를 묶어낼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확인해두어야 한다.

### 03. 새로운 예술과 지역의 가능성

예술의 위기와 예술의 시대적 소명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최근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예술에 대한 논의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새로운 예술 실천의 범주로 행동주의 예술, 공공예술, 커뮤니티 예술 등의 실천이 존재한다. 이러한 새로운 예술 실천은 기존의 예술 장르, 작가의 소유권이라는 개념, 특정 장소에 국한된 예술 실천이라는 상에서 벗어난다. 복합적이고 탈장르적인 예술 실천, 이용자들의 사용권이라는 개념, 거리나 지역을 근거로 한 예술 등의 실천이 새로운 예술 실천에 해당한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예술 실천을 통해 예술의 위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지역은 더 이상 문화와 예술의 소외지대가 아니라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긍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지역의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는 행동주의 예술, 상처의 과잉을 사람들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치유해가는 커뮤니티 예술, 버려진 폐교를 활용하는 예술가들의 실천 등 새로운 예술의 실천은 바로 기존 장르가 소외시켰던 주변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과 현장의 재발견이라는 테마는 새로운 예술의 화두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예술은 사람들의 삶과의 근거리에서 삶의 핵심을 각성시키는 새로운 비전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과 현장이라는 문제는 예술 자체의 생명력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바탕이자 근거일 수 있다. 예술의 위기가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은 지역문화와 지역예술의 논의에서 소외와 주변의 이미지를 생성과 긍정의 이미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일 수 있다. 지역은 문화와 예술의 근원적 가치를 생성하는 긍정의 의미로 재탄생할 수 있다. 지역 내의 능동적 실천의 문제가 지금 핵심 의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기조발제1>

예술의 계보학, 지역 예술의 힘

이광준

-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지원팀장

01. 흐름(Flow)

2000년 여름 원주 문막 취병리에서 ‘숲과 마을’ 미술 축전이 있었다. ‘숲과 마을’ 미술 축전은 화가 김봉준과 몇몇 작가들이 마을 주민과 함께 시작하였다. 공동체 예술과 지역을 이야기하였다. 그 해 문막 후용리에서는 노뜰도 시작되었다. 지역적 토양에서 성장하는 예술과 국제적인 예술을 만들고 있다.

2002년 문화교육에 대한 시민 사회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예술의 존재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제안으로 문화 교육을 정책화했다.

2003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구체적 대상으로써 ‘지역(local)’을 중시하고 지역의 생태, 환경, 전통과 문화, 역사, 유적, 공간, 장소 등을 탐구하고 형상화하는’ 밀머리 미술학교가 따뜻한 윈손을 시작하였다.

2004년 지역주의 미술 운동, 생태적 의식, 공공 미술적 기획으로서 예술 운동과 시민 운동이 만나서 지방 정부를 설득하면서 만들어간 안양천 프로젝트가 기획되었다. 안양천처럼 경계를 흘러갔다. 한국 사회에서 드물게 글로벌화에 반대하는 지역주의, 삶의 근거를 반성하는 생태주의, 과정과 현장으로서 공공 미술을 목표로 두고 밀고 나간 프로젝트였다. 안양 석수시장에 거주하는 보충대리공간인 스톤앤워터(Stone&Water), 백기영 예술감독, 여러 예술가와 시민단체인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가 함께 만든 프로젝트였다.

2005년 미디어아티스트와 대중음악가들과 방명주씨가 이주노동자방송국을 시작하였고, 대구 성서FM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운영하는 소출력라디오방송을 개국, 운영하였다.

02. 예술의 계보학 - 후원자와 재원

신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예술가는 결국 좋은 사제를 만나서 자신의 작품을 성당에 담을 수 있었다.(유머가 가득한) 예술을 위한 예술은 결국 독특한 심미안을 가진 후원자를 만나서 결실을 맺었다.(사회에 대한 조소가 배인) 그렇듯, 예술 작품은 후원자를, 어느 시기를 넘어 구매자를 필요로 한다. 국가/종교는 국가 이미지, 정치적 이미지 구축을 하거나 해외 교류 및 홍보을 위한 예술을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 1%의 후원자를 갖기 위해서 예술은 미술사에 기반해서 취향과 평론이 적절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신흥 후원자(금융, 증권, 게임 기업의 젊은 사람들..)을 후원자로 찾기 위해서는 적절한 화랑과 약간의 파격과 세련미를 갖춘 작품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부를 쌓아가는 새로운 층은 예술을 싫어하면서도, 언젠가 다시 예술로 귀향한다.

대중 문화는 애초부터 대중을 구매자로 목표를 했다. 통속성, 즐거움, 구매 의지, 소비 의지,

새로움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고, 잉여의 시간.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은 새로운 예술의 후원자이다. 회화, 사진, 배우의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작품 제작의 투자자가 되기도 한다.

정치 문화적 참여, 시민 실천적 참여를 하는 참여 예술가의 후원자는 시민 사회이거나 없거나였다.

전지구적 예술가 되려는 예술가는 후원자로 기관 투자자 같은 기관 구매자(재단 등)를 매혹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다.

긴 시간의 준비를 통한 설득으로 지방자치단체나 풀뿌리 시민 단체가 예술의 후원자로 나서기도 한다.

좋은 싫든, 후원자의 취향이 예술가에게 녹아들고, 예술가들은 자신의 이념을 예술작품에 부정적으로 녹여내고, 후원자는 부정적 예술 작품을 긍정적으로 소장한다. 이러한 순환 속에서 예술의 생존은 예술 밖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 03. 지역 예술이 가장 새로운 예술

새로운 예술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여러 용어를 쓰지만 그 용어에 대한 구분이 정확치가 않다. 민중 예술(문화)는 향유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행복한 소수가 아닌 노동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율적 주체, 억압받은 주체, 정치적 주체를 위한 예술을 말하는 것이다. 독립 예술은 예술의 존재 방식에 대한 문제 의식이다. 후원 체계와 상품 체계를 넘어선 방식으로 존재하는 예술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안 예술은 내용, 가치, 의미의 재구성이다. 모더니즘의 의미대로 더 자유로운 인간, 더 나은 사회, 윤리적 측면의 강조한다. 실험예술은 형식적 규범의 해체에 초점이 있다. 새로운 형식의 발견, 추구. 기술의 결합. 개인성의 반영으로서 형식성이 중요하다.

지역은 민중, 독립, 대안, 실험이 모두 결합되는 곳이다. 덧붙여 장소도 있고 생태적 각성도 있다. 그만큼 지역 예술가는 새로운 시대의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지역은 존재방식, 내용성, 형식성, 향유자와 생산자가 결합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역 속에서 한 개인이 갖는 미적 경험은 예술 “작품”으로 놓여지는 대상뿐만 아니라 경관, 숲, 늪등의 생태계 자체가 미적 대상이 된다. 또한 문화 환경을 통해 놓여진 향아리, 칠기, 화분, 보자기, 금속 공예품 등은 일상의 추억, 고통, 흔적들과 연결된 생생한 미적 경험의 대상이다. 그래서 지역은 낙후된 곳이 아니라 가장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전 지구의 중심지. 뉴욕에서, 왜 뉴요커들은 로하스(lif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 LOHAS) 족이 되려고 하는가?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생각하고, 나눔 교육을 하려고 하고, 기부자들에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가? 예술은 일상이 되고, 자연보호와 생태적 각성은 이미지로 소비된다. 하지만 그들은 뭘가를 바란다.

#### 04. 예술의 계보학 - 살아남는 방식, 뛰어넘기

자연 자체(돌, 담장, 벽), 종교적 거주지(교회, 법당, 삼신각...), 국가보관(박물관, 뮤지엄, 오페라홀, 뮤지컬 하우스), 개인 소유 및 상속을 통한 소장(소장자의 집, 소극장, 사립박물관), 과학적 보관(하드디스크,DVD,CD,마그네틱...), 교육을 통한 보관(개인 교습..)어디든 놓여질 수 있다.

그렇듯, 국제적 예술가들은 뉴욕발, 베를린발, 홍콩발, 도쿄발 기사들에 예민하기 귀를 열고 국제주의를 표방한다. 국제적 기관을 통해 작품은 보존되고 유통된다.

1%나 대중 후원자를 찾아야 하는 예술 작품은 시장의 기호와 트렌드를 살펴야 한다. 판매나 경매 시장을 통해 보존된다.

모더니즘의 근원은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형식적이든 내용적이든 참여였다. 독재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고, 모더니티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고, 형식주의에 대한 반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시성에 대한 옹호이기도 하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비판, 틀에 대한 거부, 자유에 대한 끊임없는 갈구한다.

전위적 예술가들은 도시, 공간, 일상, 문화,... 반문화와 문화주의의 수많은 언어들에 끌어들인다. 비엔날레와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지되고 소멸된다. 화석이 된다.

공공 예술은 공공 장소에 놓여 있는 예술, 공공 장소에서 공연하는 예술에서 지역 공동체 예술로 넘어가고 있다. 지역의 도시, 공간, 구조, 문화 계획에서 예술가들이개입하고 참여한다.

예술가들은 이제 예술을 너머 간다. 되기를 시도한다. 스스로 예술의 개념을 허물고 경계에서 예술을 재구축한다.

#### 05. 지역의 어려움

지역에서 살 때 다른 것은 다 이겨낼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첫째가 교육이고 두 번째가 문화이다. 교육의 질은 쉽게 높아지지 않는다. 사람이 있어야 하고,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험이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경제적인 것은 웬만큼 따라가지만 문화적 시설은 항상 시대에 뒤떨어지고, 문화기반 시설은 항상 뒤떨어졌다.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다양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감성을 개발하고, 일으켜 세울 다양한 예술이 요청된다. 예술의 계보학은 더 다양해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한다.

지역에는 무엇이 없는가? 무엇이 잠재되어 있는가? 지역에서 미래주의가 나올 수 있는가? 지역에서 몸의 미학이 나올 수 있는가? 지역 시민사회와 예술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지역에서 예술은 나이의 위계에 눌러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예술을 거부하고,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 지역에서 예술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교육적 구조를 통해서 재생산된다.

인문학, 도시연구, 건축, 디자인, 회화, 조각, 미디어, 영상, 소리, 연극, 마임, 춤, 음악....의 새로운 존재 방식은 가능한가? 지역에는 사람이 없다.

## 06. 예술의 계보학 - 역사에 대한 요약

고대 유럽에서 인간의 이상은 진리와 윤리와 아름다움의 합일체였다. 동양에서 예술은 정신 세계의 구현이거나 자연과의 합일이었다. 어떤 때에 예술은 종교적 공간을 통해서 생존하고, 교회라는 후원자를 통해서 유지되었다. 아름다움은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에게 열려 있었지만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되는 예술품은 국가가 조성한 무덤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었다. 근대에 오면서 예술은 과학과 결합을 하였다. 원근법에서 음향학까지... 예술가의 직관은 과학을 넘어서려고 했다.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예술은 넓어졌고, 대중이라는 후원자의 성장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이 발전하였다. 이제 문화적 놀이는 “언제 어디서나”를 추구하게 되었고, 매체를 통한 예술 감상도 “언제 어디서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성에 대한 주장은 꼭 필요하지만, 내용없는 다양은 개념없는 공허와 같다. 그러한 다양성은 결국 개인주의로 회귀한다. 이 시대 다시 인간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 에너지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숭고는 다시 강화되고 있다. 도시에서. 고급문화, 대중문화, 민중문화와 함께하는 예술은 종교, 철학, 과학과 결합을 넘어서서 그것의 결집체인 도시를 반성하기 시작했다. 또 예술은 시장을 당연시하고 공공적 영역도 당연히 요구하고 있다. 예술과 지역의 관계는 아직도 불편하다.

## 07. 역사를 뛰어넘기

긍정성에서 출발함 :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 삶의 방식에 대한 긍정

물구나무를 씌 : 젊음에 대한 존중, 지혜에 대한 존중-복합과나 신지식인이 필요한 시대는 아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함 : 지역과 지역의 교류 (지방정부-지방정부가 아니라..)

일상을 재구축하는 예술 : 삶의 근거와 연결된 문화예술 활동

협력과 연대 :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프로그래머, 미술가, 음악가, 배우의 협력. 동시대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지역이 자신의 지역의 문화적 자원과 예술적 자원으로 만 무엇을 기획하기에 역부족이다.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것 : 메트로폴리스. 메가시티의 “다른” 양식, 방식, 정서, 상상이 있는 곳이 지역이다. 현재의 대도시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감동과 숭고의 미학 : 도시의 쾌락주의를 지역이 따라갈 수는 없다. 도시의 우울. 백색. 수사학. 쿨함. 일정한 가벼움, 전원주의, 생태무늬예술.....따라갈 수 없다. 지역의 관광주의를 예술이 넘어설 수는 없다. 수많은 관광의 제도화, 자신의 이미지까지 도시인에게 팔아야 하는 지역. 왜 부러워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가? 나는 왜 해남에 가는가?

생태성 : 도시의 결핍 - Sustainable. 공방. 느린 생산 구조.

## 08. 예술의 계보학 - 지속가능, 지역공동체, 소수자 예술과 문화활동

### 지속가능한 예술 Sustainable Art

교육과 함께, 생태와 함께, 물질과 함께 지속가능한 예술이 된다. 시각주의를 탈피한 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에 들어오고, 풀뿌리 정치가 예술과 결합한다. 또, 예술의 새로운 후원자와 결합해서 자신의 존재 방식을 일군다.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생태성을 생각하고 자연 속에 묻은 신화와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지역은 보존이 아니라 항상 새로움을 통해서 유지되고 활성화 된다. 또한 독특한 생태적 감성 구조, 지역적 정서 구조에 기반한 소통 형식, 문화 형식, 예술 형식을 창조한다. 이것을 통해 지속가능을 원하는 지역과 지역이 문화를 교류하고 자원을 교류한다. 그 속에서 생산의 구조를 만든다.

### 지역공동체 예술 Community Art(대승불교적 관점의 공동체 예술, 수잔 레이시)

대승 불교적 관점의 지역 공동체 미술. 뉴장르 공공미술이 있다. 아뜰리에에 거주하면서 자기 치유와 자기 수양하는 예술 개념을 탈피해서 예술의 향유와 생산, 예술의 존재 방식, 예술하는 나 자신의 삶 자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생(生)이 변하지 않고, 예술이 변할 수는 없다. 예술은 다른 문화적 형식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도시계획, 건축, 문화기반시설 공간 리모델링, 교육청을 문화커뮤니티로 만드는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등등 관료주의적 규범을 뛰어넘는 관계 방식을 창조하고, 경제적 유지를 한다. 지역공동체 예술(Community Art)은 전근대에 대한 반성과 근대에 대한 통찰에서 출발한다. 전지구화되는 문화, 개발주의, 예술 개념을 넘어서는 곳에 있다.

### 소수자 예술 minority art

작가들은 스스로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있다고 말한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 소외된 소수자들의 연대, 소외된 소수자와 함께 살기 방식이 필요하다. 그 스스로 치유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친구가 되면서 가부장적 관계 방식을 넘어서고, 배제의 문화를 넘어서는 방식을 예술적 방식을 문화적 실천으로 지역 속에 통합해 간다. 새로운 디자인과 만나고, 예술이 공예와 만나고, 예술이 대중문화를 해체 재구성하면서 소수자의 삶과 함께할 수 있다. 소수자를 통해 사회적 제형식이 만나고 융합되고 생성된다. 에너지가 깊숙한 춤이 나오고, 성큼 다가오는 마음이 나올 수도 있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옆에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숙성된 예술 형식은 문화 기반 시설과 망을 통해서, 매개자를 통해서 먼 여행을 갔다 올 것이다.

## 09. 지역 문화 예술의 풀뿌리 - 사람에 기반한 정책

지역에서 예술 경영은 간접 지원 능력을 개발 해야 한다. 감성 능력, 지역과 예술과 인문학에 기반한 기획, 타자를 느낄 수 있는 EQ가 높아야 하고. 문서 작성 능력, 비평적 글쓰기, 존중의 문화에서 나오는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지역 문화와 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진 매개자가 생성이 되어야 지역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지향적 홍보와 향유자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또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자원 개념으로서, 지역 예술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사유되어야 한다. 즉, 도시 개발과 성장기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중앙 거점 전략 방식이 아니라, 풀뿌리 생태계부터 시작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풀뿌리 예술가 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매개자 교육을 구조화하는 것. 새로운 예술 개념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에 재검토 과정, 문화와 예술, 예술과 지역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좋은 사례의 형식을 보기 전에 그 사례의 진실성, 지역과의 적합성을 봐야하고 그 사례가 발생적 진화를 할 수 있었던 원천에 생각을 해 봐야 한다. 탁월한 예술가가 어떤 문화적 원천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어떤 예술의 계보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문화 속에서 예술의 위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문화를 활성화하고 창조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관계 방식을 새롭게 짜가는 그런 의미의 다양한 예술가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 형성이다.

타자를 초대하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숙성시키는 워크샵, 문화예술의 매개자를 길러내는 과정으로서 레지던스, 조례 개정부터 지역 기금까지 향유자와 결합된 일상적 활동을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이고 자생적인 재원형성, 지역과 지역의 토론과 연대에 기반한 정교한 정책적 요구가 필요하다. 지역 문화예술이라는 관점에서 문화, 예술 정책과 이론과 사례를 검토를 해야 한다.

<기조발제2>

지역과 새로운 예술 흐름

전고필

-지역소위원회위원

-광주북구문화의집상임위원

01. 들어가며

지역은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며 새로운 에너지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병참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하여 많은 도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시달리고 힘들어 할 때 낙향을 생각하고 그 대상지를 자신의 태생지이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지역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대한 이들의 기대는 막상 현장에 다가가면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 그 이유는 꿈꾸고 떠 올렸던 지역의 모습을 오로지 밝고 긍정적이었던 곳에만 초점을 두었거나 너무나 암울했던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미 상기하던 세대의 등장 인물과 배경은 저 만치 사라져 갔고 이제는 호명하기조차 힘들어 진 것이 오늘 변해 버린 지역의 현장이다. 그리고 이렇듯 지역을 거명하는 사람 또한 이미 중앙집권적 패권적 사고에 감염되어 있는 것임을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지역에 천착하며 지역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예술가와 지역의 활동가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 보면 이 또한 딱히 대답하기 어렵다.

예술시장의 위축과 그로 인한 예술가들이 입지가 흔들렸던 일은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예술가들이 운신 할 수 있는 폭들이 넓혀지며 지역 문화가 발현할 것으로 보였지만 실체는 정치권과 연을 닿은 몇몇에게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전체 판을 아우르는 조직이나 담론의 형성과정 등은 오히려 위축 된 느낌이 강하다.

이런 가운데 서울 중심의 패권은 변할 듯 변하지 않으며 진행되고 있으니 지역의 앞날은 과연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 것인지 암울하기만 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토대로 한 예술가들은 창작활동을 위한 경제적 자생성과 창작 정신을 실현하기 버둥거리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며, 정부의 지방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그 지향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비틀거리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원고는 그나마 꿈틀거리고 있는 지역 예술의 흐름을 광주와 전남을 중심에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02. 지역 예술정책 몇가지

1. 행정의 경험과 전문성

광주가 문화중심 도시를 선포한 것이 2년전의 일이다. 대통령이 비엔날레 전시 개막식에서 광주를 본격적인 아시아의 문화 중심도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문화중심도시 추진위원회를 두어 그 비전과 전략을 만들도록 하였다.

하여 광주의 슬로건은 문화중심도시 광주가 되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도시의 비전이 다음 세대에 맞춰지면서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문화도시를 향한 행보는 행정과 민간사이의 거버넌스도 부족한 실정이며 민간과 행정간의 교량 역할을 할 행정내의 문화전문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 도시의 발전전략과 비전이 문화를 중심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기존의 관습을 그대로 답보하며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광주가 이런 지경인데 타 지역이 오죽하겠느냐는 생각이 일 정도이다.

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것은 광주가 어찌되었든 1995년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하면서 시작된 행정 인력의 비엔날레 파견은 공무원 조직내의 문화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측면이 있다. 광주시를 비롯하여 시 산하 5개 구청의 공무원들이 많게는 100여명에서 10여명씩 파견되는 비엔날레는 문화현장의 생동감 있는 모습의 장단점이 동시에 보여지는 곳으로 많은 의미성을 지닌다.<sup>1)</sup> 이렇게 비엔날레에서 파견 근무한 후 복귀한 인력들이 문화부분의 담당자가 되었을 때 갖는 행정의 전문성은 예술가나 매개자들의 활동부분에 있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국제적인 문화행사나 지역내의 문화행사에서의 경험과 교류는 어찌되었든 한 도시의 정책 형성과 인력 수급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 2. 산업에 복무해야 할 문화로 인식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재정 부분에서 한 도시를 옥죄는 열쇠가 되었다. 국고의 지원은 이전과 달라 대응투자 방법을 적용하면서 재정이 빈약한 곳은 좋은 사업을 구상하였다 해도 대응자금이 없어 접어 버리기 쉽다는 점이다.

아울러 지역 세수확보에 대해 비상이 걸린 지방정부는 기업의 유치와 일자리의 창출만이 지역이 살 길이라는 인식하에 삶의 질과 관련한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은 부차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광주와 같은 경우는 문화중심도시를 통한 삶의 문화화와 일상화가 주창되는 것이 아닌 문화산업을 위한 특구지정이나 산업단지의 개설과 같은 정책들이 거론되며 문화도시사업의 전체적 맥락을 휘젓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문화의 성장은 한 그루의 나무가 거목으로 성장하듯 가랑비가 젖어들 듯 서서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경제론적 입장에서의 접근은 영상산업이나 디자인, 전시컨벤션 산업 등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산업적인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지역내 인적 기반이나 문화적 환경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점진적인 진입이 필요하지 마치 이벤트를 하듯 접근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인 것이다.

## 3.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시범 출발

2004년 5월말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진흥위원회가 광주에서 시범출발을 하였다. 이는 중앙의 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지역에서도 많은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1) 단기 파견은 단순 행사운영지원에 그치며 한 회에 100여명이지만 장기 파견은 10명에서 30여명으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기간은 평균 1년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흥위의 출발이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토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소액다건의 지원 정책은 변함없이 행해지고 있고 진흥위의 임원에 대한 선임에서 정치적인 입김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예총, 민예총, 문화연대 등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각층의 견해차와 이해와 관련한 요구들이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문제는 바로 창작현장에 있는 작가들과의 조우 지점이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조직 간의 관계에서 조직 내부 인자인 예술가들은 고립되고 임원들이나 위원들의 입김만이 진흥위에서 관통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작동으로부터 계층간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표류하는 듯한 예술위의 미션과 시스템이 정확히 정립되고 독립적 기관으로서 진정한 예술진흥 및 향유활동 지원의 시기가 돌아오는 날은 아직 요원해 보이는 현실이다.

#### 4. 중앙의 지방지원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세우며 진행되면서 문화관광부와 타 도시의 불멘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러한 문화도시에 대한 사업의 효과들이 예술가나 매개자에게 직접 투여되지는 않고 있다. 풍요속의 빈곤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견 현실이다.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설계, 부지 매입 등의 일이 진행되는 사업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외부에서는 광주가 문화부분에 대한 예산이 넘쳐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광주가 향후 이러한 문화부분에 대한 예산의 사용을 광주만의 것으로 고립하는 길을 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견제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여튼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참여정부가 2005년 지방정부에 대해 지급하던 국가보조금 사업중 24가지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했다는 것이다.

그 예산은 365억 2천팔백만원으로 주요한 사업은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인센티브 지원, 예술창작 스튜디오 지원, 조각공원 조성, 문화학교 운영지원, 문화의 거리 조성, 지역별 특성화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결국 중앙 정부의 지방사업 이양은 지역문화활동의 위축을 불러 오고 있으며, 지방정부간의 지역문화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에 있어서 편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03. 지역 예술의 변화 흐름

#### 1. 하방이 시작되고 있다.

한 해전 푸른연극마을이라는 공연단체가 인구 140만의 광주를 두고 보성으로 내려간 것이 토픽 뉴스로 떠오른 적이 있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썰렁한 관객, 무심한 정책에서 비롯된 창작활동의 위축에서 기인하여 감당하기 버거운 단체활동 유지비를 보다 줄이며 자신들만의 창작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택한 것이었다.

그들은 보성의 폐교를 중심으로 하며 지역민과 밀착된 생활예술을 일구기도 하며 학교,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에도 관여하며 생활하고 있다. 광주에 있었을 때 보여주었던 창작 중심의 활동에서 새로운 창작 풍토를 가꾸기도 하며 소외 지역의 문화향유활동의 큰 축을 형성하기 시

작한 것이다. 이렇게 단체가 내려간 경우는 보성 말고도 담양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경상도에서는 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큰들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의 활동이 위축된 지역 문화를 다시 부흥하고 주민간의 결속을 다져주며 새로운 문화운동의 축을 형성하게 되는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연단체 뿐만 아니라 개별 창작자들이 지역으로 내려간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문화인들이 기존의 조직이 아닌 지역을 근거로 한 문화네트워크의 틀을 만들고 있기도 하다.

## 2. 문화축매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하방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역내 예술인과 매개자들의 모임은 지역에서 또 하나의 일을 만들어 낸다.

견고한 지역예술인들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행정의 지원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만의 색을 가지고 지역과 결합한 문화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장흥문화마당과 같은 단체이다. 이들은 90년대 후반 IMF로 인해 귀농을 한 이들이나 조직을 통한 창작활동이 아닌 독립적 문화창작 활동을 하던 이들, 기획자와 이론가 등이 결합하여 한 수몰될 마을을 배경으로 한 종합 문화축제인 수몰마을 문화제를 진행하며 지역 사회의 새로운 문화활동의 흐름을 제시하기도 했다.

2002년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단체와의 불협화음과 견제를 뚫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동참하기 위해 지역만의 고민을 지표면에 올려놓으며 그것을 풀어내는 사업을 통한 네트워크를 일구어 나가고 있으며, 인접한 지역과 교류도 활발히 하며 상호 문화 품앗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까지 진행하다 최근에는 연대 조직까지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창작자들이 단일 장르에 국한하여 진행하는 기존의 전시나 공연 방식을 통합하며 복합장르로 구성하며 그 내용면에서도 지역성에 기반한 것을 부각하여 주민과의 결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무척 의미 있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 3. 기존 조직의 변화와 새로운 조직이 태동하고 있다.

지역문화의 핵심 권력이자 지역 유지들의 원로원과 같은 문화원의 체제가 이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인력 중심의 문화원이 점차 시설공간까지 갖추게 되자 이 공간을 운영할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익 창출의 모델들이 요구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문화 진흥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정책 사업 공모를 통해 이뤄지자 빚장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사무국장 공채와 그에 따른 정부의 급여 지원이라는 당근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시군단위의 문화원이 전문인력을 확보를 위해 공채를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담양의 경우 최근 한 시인이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신안군의 경우는 인류학을 전공한 사무국장이 활동하고 있어 지역과 학계, 전문가와의 연결축을 보다 긴밀하게 하면서 지역문화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변화의 축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전문 문화예술인과 활동가들이 기존 조직으로의 편입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굳이 이런 조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체 문화관련 인력과 관심있는 이들이 모여진 커뮤니티 또한 많아지고 있다.

앞서 얘기한 장흥문화마당 외에도 담양의 예술인연합회, 강진의 문예마당, 영암의 달터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고흥의 제석사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보성 감자꽃 등 문화공동체가 속

속 등장하고 있다.

#### 4. 새로운 문화공간이 탄생하고 있다.

96년 시작된 생활권 문화향유 및 창작공간인 문화의집이 2006년 광주 북구의 각화 문화의집을 개소함으로써 157개가 되었다. 애초 계획은 2010년까지 550여개를 만들고자 하였지만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정부 이양사업으로 문화의집 조성이 지방정부에 넘어가며 국가 보조금이 더 이상 성립할 근거를 잃게 되었다. 한마디로 문화의집은 이제 지방정부의 강한 의지가 없다면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소예산으로 지역민의 생활권에서 문화향유와 창작공간으로 활용되는 문화의집 조성 사업의 중단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생활권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창작과 교류의 공간으로 쓰일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와 문화원 연합회의 주관으로 2004년 28개, 2005년 11개가 개소되었고 2006년에는 12개의 공간이 개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그 동안 관주도의 문화시설 건립이 접근했던 규모와 예산의 방대함이 갖는 약점을 극복하고 생활권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예술가나 매개자들이 시설 조성 및 장비구입 등에 관한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전국 지역에 고루 포진하고 있는 이러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은 아직 네트워크나 협의체 등의 조직 구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추후 연합 활동이 이뤄지고 광범위한 홍보가 이뤄진다면 매우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시설 리모델링에만 국한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과 유지 관리에도 지원되는 지속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며,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도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활동가들의 지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 5. 공간이 문화적으로 활용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2006년 6월 초 전남 화순의 만연사라는 사찰에서 한 스님 음악가의 공연이 있었다. 그 날 공연에는 세명의 시인과 가수가 참여했는데 관객만 1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운집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사찰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엄숙성이나 신성성을 잠깐 열어두고 산사에서 열리는 이러한 음악회는 해남의 미황사, 조계산의 송광사, 두륜산의 대흥사 등으로 확장되어 있었다. 이뿐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의 찻집에서 열리는 음악회, 장흥의 오래된 숲이라는 한옥집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강연회, 광주 서동의 한옥을 개조한 갤러리 서동, 화순의 도암면 마을 회관에서의 전시회, 폐교의 활용 등은 문화활동이 꼭 공연장이나 전시장의 규격화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엿보이게 하는 행사로서 이제 그 형식성이 점차 깨져 나가고 있다.

#### 6. 창작 및 창작자의 범주가 넓혀지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공간의 확충과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예술창작에 대한 기존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창작자가 되려면 전공을 하고 일정한 코스에서 검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관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단일 장르 중심의 예술활동이 다양한 장르의 결합과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접근 방법의 다양화로 그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평면회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영상이나 설치전에 참여하는 부분이나 문화예술교육의 강사로 참여하는 부분, 공공미술이나 조각전에 참여하는 등 활동의 폭이 넓혀지고 선택하는 장르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아울러 이런 활동들이 창작의 소재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밀착과 지역활동가들의 교류까지 생산해 내고 있다.

반면 예술창작자들의 이러한 활동들이 일시적 기금의 지원에 의해 형성된 기류이며 이 자체가 순수예술활동에 당위정처럼 사용될 여지가 높다는 비판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7. 인력양성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장르중심의 예술대학 체계에서 이제는 문화기획관련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등으로 전문 인력양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에 기반한 문화시설과 단체인 문화센터,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민예총 각 지부, 예총 각 지부 등을 축으로 하여 문화기획 과정의 운영, 문화 자원봉사자의 양성과정 등이 운영되며 문화관련 인력의 양성이 풍부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만으로는 문화인력 양성의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연결한 현장 인턴제의 운영이나 프로젝트의 수행 등이 연결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필요하다.

#### 8. 국제적 교류의 확대.

지역을 토대로 한 국제교류는 사실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지역예술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물꼬를 트게 되면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광주의 경우 아시아인의 마당 민중연극제를 개최함으로써 중국(북경, 상해), 일본, 대만, 홍콩 등과의 교류를 전개하였으며, 아시아 광대전 등으로 후속사업이 준비되고 있다. 즉 도시 이야기를 주제로 각 국 연극인 1인씩 참여하는 청주에서의 1달간의 워크숍과 그를 토대로 한 연극 공연이 7월 28,29,30일 광주 옛 도청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를 보더라도 과거의 단순한 이벤트성 교류가 아닌 동 지역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공유와 이를 토대로 아시아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동일한 선상에서의 지속성 등을 유인해 나가며 그 개최 지역과 지역민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게 되며 지속적인 관계망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일례로 대만의 차사극단과 같은 경우는 광주를 방문하기 전에 그들의 연극 속에 김남주의 시를 차용했으며, 광주 방문 후에는 광주의 5월을 테마로 한 연극을 만든 것은 좋은 사례에 속한다.

### 04. 나가며

전술했듯이 지역문화는 그 척박한 지원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질경이처럼 끈질기게 호흡하고 있다. 그 가장 큰 핵심에는 지역에 천착하고 애정을 쏟아 붓는 예술가와 활동가들이 있는 까닭이다. 게다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정치인을 만나면 지역 문화계의 발전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하지만 지역문화계와 문화시설을 정치인의 입지수단이자 표밭으로 계산할 경우는 그 동안의 시행착오 보다 더 큰 과오를 일으키는 주범이 된다. 더불어 서두에서 언급했듯 지역예술위원회가 갖는 민간체제로의 이양이 가져다 줄 순기능들이 각 단체의 관계에 의해 분쇄될 때 그곳에는 단체만 남고 정작 이를 통해 지원 받으며 창작활동을 해야 할 예술가들의 입지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옥상 옥이 되는 것이다.

지역의 건강성을 지켜나가고 지역의 문화향유와 창작활동을 진작하고 있는 마지막 교두보인 예술가와 매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한 제도화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말을 던져 놓으며 문화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겠다던 창의를한 국과 예술의 힘에 그렸던 미션들이 행정과 정치에 의해 시들거리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민간 주체로서 예술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저기 이제 맹아기를 지나고 있는 새싹들이 보이지 않는가.



<사례발표1>

극단 노뜰 이야기

원영오

-다원예술소위원회위원

-극단 노뜰 대표

01. 철학

극단 노뜰은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의 문화적 양상들을 연극 인류학적 입장에서 수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연예술을 창작하는데 주력 한다.

극단 노뜰은 우리 연극의 세계적, 보편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주류와 비주류를 넘나드는 다양한 창작활동을 병행한다.

극단 노뜰은 말을 절대적 무대언어로 인정하고 있는 연극적 방법을 확장하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교감 수단들 중 무대언어로 적합하며 세계 속에서 소통이 가능한 지점을 찾는다.

극단 노뜰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지역민과 어우러지는 생태적 삶을 실천하며 지역민 문화예술체험교육을 매개한다.

02. 공간

후용공연예술센터는 2000년 11월부터 자리잡기 시작했고 2001년 3월 공식개관하였다. 처음 계기가 된 것은 작품의 미학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적 욕구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중, 소도시를 창작거점으로 하고 있는 예술단체는 역량있는 예술가들을 지역내에서 확보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대도시, 또는 국외에서 구성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체생활을 통한 밀도있는 작업여건이 절실하기도 하였다.

지금 노뜰의 공간은 연극창작 공간이면서 동시에 국내, 외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스 공간이고 또한 이웃들에게는 문화예술교육의 공간이기도 하다. 극단 노뜰은 국내, 외 공연활동을 통해 만나게 된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예술적 나눔을 위해 레지던스 및 공동작품 활동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예술창작 거점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간 해외에선 일본의 모노크롬 서커스 무용단, 극단 청년단, 극단 블랙텐트, 태국의 b-플로어 씨어터, 싱가포르의 T.N.S 마카오의 WACFEST,외에 홍콩, 대만, 호주의 예술가들이 머물며 공동창작 워크숍 및 공동제작 공연을 하였다.

03. 공동체

함께 살아서 공동체가 아닌 철학적 공유의식과 삶과 연극이 이원화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선택한 노뜰은 공동체의 공간에 대해 그것이 도시이건, 농촌이건 단지 작업공간의 의미만을 갖어서는 안된다고 여긴다. 작게는 연극공동체 크게는 환경(마을,도시) 공동체로서의 자기 존재와 역할을 갖어야 한다. 공동체에서의 연극작업은 작업의 능률이라는 필요조건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 삶의 구석 구석에서 토론과 논쟁과 생산과 노동이 함께 있어야 한다.

“노뜰”은 노동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스스로 예술가여야한다.

#### 04. 공연

극단 노뜰은 1997년 첫 해외 공연을 시작으로 모나코, 동경, 도가, 교토, 돗토리, 에들레이드, 싱가포르, 토리노, 아비뇽, 북경, 키시노우, 시비우, 에서의 공연과 국립극장,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서울 공연예술제, 대전 예술의 전당, 안산 예술의 전당, 과천 한마당 축제, 제주, 대구, 인천, 여주, 원주, 정선, 평창, 횡성, 주문진, 영월, 함백, 속초, 춘천, 등 세계각국 30여개 도시와 마을에서 공연하였다.



<사례발표2>

광주와 미술

윤남웅  
-화가

호남(광주)은 타 지역 도시와는 다르게 “예향”이라는 단어가 지명 앞에 따라 붙는 지역이다. 그러나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현재까지도 직접 피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광주는 이러한 “예향”을 명분으로 삼아 비엔날레를 5회 준비하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는 거대한 문화도시 건물이 건설 중에 있지만 정작 광주의 문화생산구조 안에서는 생기고 있는 움직임의 변화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거대한 문화 덩어리만 굴러다니지 기초 문화를 생산 할 수 있는 바탕문화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아무런 배려와 관심이 없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정책과 기존 광주의 보수적인 미술문화 현상으로 창작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기존 토양을 닦을 기본 에너지마저 상실한 느낌이다.

기초 바탕문화가 없는 상황에서 제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올리고 화려한 문화행사를 한들 같은 공간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로 부터 외면당한 공간은 도시의 흥물에 불과할 것이며 몇몇 관계자만 거대한 공간을 배회할 뿐인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큰 계획에 앞서 창의적인 문화를 어떻게 기본 토양 위에서 자생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관심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의 작고 서툰지만 젊은 작가들의 문화운동이나 미세한 소그룹의 움직임, 자생적인 공연, 전시, 기획 하나하나까지 깊은 관심이 깃들 때만이 거대한 문화도시를 보다 풍부하게 하며 미래를 밝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광주)미술의 자생적 회복

광주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열악함과 문화를 리드할 수 있는 정신적 기획자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한 역할분담도 아직 초보 수준이어서 작가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어려운 환경이며 여기서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어려움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본인이 직접 참여 전시한 사례 세 가지를 예로 들겠다. 이를 통해 보다 새롭고 다양한 문화 만들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례1) 2000 공동 프로젝트 ; 생동하는 예술의 거리 7만 3천 600호전

- 광주 공동 예술의 거리

이 전시는 광주지역 작가인 주홍 선생께서 주변의 몇몇 작가와 토론을 통하여 기획한 프로그램으로서 당시 상황으로 기억해보면 어떠한 지원이 없이 작가들 스스로가 협조하여 기획, 진행한 것으로 기억된다.

공동 예술의 거리는 타 지역 도시와는 다르게 지역의 미술역사와 함께 화랑, 갤러리, 화방, 문화인들이 즐겨 찾는 술집 등이 밀집되어있는 공간으로 90년 초까지 광주의 문화예술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광주작가들에게는 그나마 자유스런 도시 속의 공간이었다.

90년 이후 급속히 쇠락한 공동의 거리는 창작자와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쇠락한 이 공간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기획에 광주작가 32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스스로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소품과 화구를 직접 가져와 공동 길거리에 설치하고 작품을 제작 하였으며 주변 상가 주민들의 처음 반대와는 다르게 스스로 인정하고 동참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획득하였으나 후로 지속되지 않아 현재에는 답보 상태이다.

## 사례2)현장미술 프로젝트 보고서, 2002

### -광주 롯데갤러리 기획

광주에 두개의 백화점(신세계갤러리)중 하나인 롯데갤러리 큐레이터 박성현 씨의 기획 프로그램이었다. 광주의 젊은 작가들로 구성된 작은 그룹들로 모내기 퍼포먼스,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 좋은세상 만들기, 우실조형 연구팀, 그룹퓨전,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모임 등이 참여하여 백화점 내 갤러리에서 전시하였다.

80년대를 기점으로 광주의 미술현상은 정치와 대립하는 큰 그룹과(광미공, 시대연) 많은 그룹들이 각자의 색깔을 보이면서 출발하는 듯 하였으나 90년대 초 군사정부의 퇴락으로 그룹들 대부분이 해체되어 각자의 발언으로 작품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미술운동 또한 점차 쇠락의 일로에 들어섰다.

또한, 이 전시 프로그램에서 처음 접하게 된 몇 개의 신생 그룹 등은 과거의 정치적 발언보다 현장에서 체험한 내용이나 그룹의 특성에 맞는 소재와 내용을 중심으로 설치, 제작하였다.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어 작가들의 개인 중심의 창작미학에서 현실 참여적 소재가 관심화 되었다 .

이후 참여했던 몇몇 그룹들 이외에는 특별한 전시기획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또한 광주미술의 현실이며 한계이다.

### 사례3)場 모임 展

장 모임전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번째 전시를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장모임의 처음 의도는 전시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광주 근교의 담양 읍을 주변으로 젊은 작가들이 이주하면서 재래시장 국밥집에 자주 모여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된 전시로 아직까지 그룹 구성원을 규정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다양한 작가를 자연스럽게 참여시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장 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에서보면 기존 갤러리의 공간과는 다른 국밥집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며 전시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작가 스스로가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접근 할 수 있으며, 관객을 직접적으로 전시에 불러들이지 않아도 쉽게 대중과 소통이 가능하여 전시효과가 크다는 것이 장점이다.

아쉬운 점은 전시장소(국밥집)가 편안하고 전시기획이 자유스러운 탓으로 작가들 스스로가 책임 있는 작업태도에 한계를 보이며 장소의 특수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 전시 기간 중 부족한 점으로 나타남.

위의 예로 보았을 때 광주의 미술문화 현상은 의외로 열악하며 새로운 대안이나 제안마저 제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작가는 언제나 이런 사회현상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어떤 他에 기대어 있기에 너무 나약해 보일 수밖에 없다. 문화 주체인 작가(젊은 작가) 스스로가 실패에 민망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화 생산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를 제시할 때만이 지역 문화토양이 풍요로워지고 문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 <사례발표3>

##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

한보리

-시하나노래하나 대표

### 01.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의 ‘포엠 콘서트’ 기획 제작의 개념

이제까지의 예술이 예술가 자신의 내면세계에 깊이 침잠하여 대중과는 거리가 먼 고답적이고 권위적인 면을 보였다면 인터넷의 발전에 의한 정보의 공유로 다분히 친절한 예술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 때문에 20세기까지의 예술이 끊임없이 분화 발전해 온 것이라면 21세기 예술은 대중들에게 친절한 설명을 위해, 분화했던 장르들이 서로 결합하고 혼합되는 크로스오버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장르의 생성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One Source Multi Use 의 시대 또는 Multi Source Uni Use 가 필요하게 되었다.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의 포엠 콘서트는 이런 맥락에서 시를 소스로한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모인 예술가 그룹이다. 이는 지극히 견고하고 딱딱한 기존 예술방식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며 이와는 정반대로 날마다 넓어지고 상피적인 자극으로만 일관하여 천박해지고 있는 대중가요에 시를 접목시킴으로 시가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은 시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시가 노래되어 영혼을 맑게 하고 삶을 적시는 꿈을 꾸며 시작한 문예운동이다.

문화란 진보와 함께 다양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 문화는 서울 중심의 중앙문화에 길들여져 지역에 존재하던 풀뿌리 같은 문화가 거의 사라진 상태다. 따라서 중앙의 제도권 문화가 대중매체에 의해 마치 공중폭격처럼 살포되면서 이 시대의 문화는 편협해졌으며 일반 대중들은 천편일률의 모습과 냄새를 가진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과 같은 문화를 바른 문화로 오인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하여 포엠 콘서트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예술, 친절한 예술을 표방하며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성의 보존을 위해 기획되고 제작되었다.

### 02.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의 포엠 콘서트 성과

#### 1. 많은 결과물

문화 예술품의 양산 (음악, 영상시, 그림시, 애니메이션 등) 특히 음악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문화 상품임.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들의 시세계 조명 최종 결과물 (output)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있음.

#### 2. 서로 다른 장르의 창작자들이 합작하면서 예술적 교류

서로 별개의 그룹으로 존재하던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 작업함으로 활발한 예술적 교류가 있었으며 새로운 방식의 예술이 제시되었다. 좋은 예를 들면 시 노래와 연극, 그림, 무용, 퍼포먼스가 동시에 결합하는 ‘입체적 시읽기’가 있다.

#### 3. 유능한 창작자 배양 배출

매스미디어에 의해 창의적인 삶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에게 창작의식을 고취시키고 포엠 콘서트 무대를 통해 작품을 실험함. 개인의 예술적 기량에 깊이를 더함.

4. 대중 예술의 고갈에 영향

타장르보다 대중가요는 TV매체 혹은 방송사들의 대규모 행사에 영향을 받아 기반을 상실했다. 거의 초토화 되어 자력갱생이 불가한 상태이다. 공연장에서 행해지는 전체 공연물의 5% 정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정서의 특수성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대중음악이 생산되지 않았지만 포엠 콘서트를 통해 정기적인 대중음악 공연을 시민들에게 공급했고 포엠콘서트에서 만들어진 노래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 전역에 걸쳐 전해지고 있다.

5. 대중가곡

음악적인 실험에만 치중한 한국 가곡의 난해함으로 실제 삶과의 괴리를 없애기 위한 가곡의 현실화 작업 시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결과물로 ‘진진의 포엠 송’ 음반이 제작되었다. 현재 팝페라로 불리우는 장르지만 팝페라라는 용어는 잘못 쓰여진 단어 (팝페라의 정의는 오페라에서 불려졌던 잘 알려진 곡을 대중적으로 편곡 연주한 것을 말함)이다.

6. 예술가들의 설자리 창출-발표의 장 마련

7. 유사 단체들이 만들어 지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시노래모임 ‘나팔꽃’을 위시해 울산의 시노래모임 ‘푸른 고래’의 벤치마킹의 모델이 되었다.

8. 시를 매개로한 새로운 문화 개척

시를 노래한 것이 물론 처음은 아니다. 이미 가곡을 통해 시가 노래화되거나 대중음악에서도 시를 소스로 사용한 적은 있었지만 포엠 콘서트에서처럼 다양한 방법의 접근은 없었고 또한 지속성과 운동성을 가진 적도 없었다.

9. 작업자 스스로 깊어지는 것을 체험

**03.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의 포엠 콘서트 흔적**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는 1998년 ‘시하나 노래하나’ 단체 설립으로부터 출발 황폐해져가는 대중문화에 시를 접목시킴으로 대중문화의 질을 높이고 생활과는 동떨어져 문학 안에만 머무르는 시를 생활 안으로 불러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

1998년 ‘사과꽃 피는 저녁’ 음반을 발표하며 활동 개시

이후 약 2년 동안 광주 문화방송과 중고교, 대학교를 순회 탐방하며 학생들에게 시를 쓰게 하고 노래를 만들어 발표함으로 시창작에 관심을 유도하였고 프로그램 안에 다양한 음악적 교육을 결합해 광주 MBC에서 방송됨

그 결과물을 2001년 음반 ‘광주MBC 시하나 노래하나’로 묶어 발표

2003년 4월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를 결성

2003년 6월 고재종의 포엠 콘서트를 시작으로 매월 한분의 시인을 모시고 시인의 시세계를 조명해보는 콘서트로 이듬해 말까지 19회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

2005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년 4회 계절별로 축소하는 반면 광주 오월 특별 포엠 콘서트 ‘꽃진 자리 피어나는 봄’ 등 특별기획 콘서트를 열었다.

포엠 콘서트는 실험적인 시를 쓰는 젊은 시인으로부터 원로 시인, 여류 시인까지 고루 무대에

올려 한국 시단의 폭넓은 문학적 토양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참여 시인으로 고재중, 복효근, 이정록, 박남준, 나희덕, 장석남, 김준태, 안도현, 정호승, 천양희, 최영철, 황인숙, 신경림, 박용철, 정일근, 함민복, 이시영, 정희성, 강은교, 김용택, 이성복, 정양, 도종환 등이 있다.

#### 04. 특별기획 포엠 콘서트

2005년 10월 22일 김남주 시인의 ‘이 가을에 나는 푸른 옷의’, 10월 29일 조태일 시인의 ‘꽃 속에서 산 속에서’, 12월 16일 김현승의 ‘참으로 아름다운 것과’ 이상 세 분의 작고시인 콘서트를 제작했고 해남 대흥사에서는 초의선사 포엠, 화순 운주사에서는 ‘운주여 닳을 올려라’ 콘서트 등 시를 매개로 한 다양한 콘서트를 새롭게 만들어 왔음.

#### 05. 찾아가는 포엠 ‘2006 간이역 순회 시노래 콘서트’

포엠 콘서트가 이 지역에만 머물러 있음으로 하여 생기는 본래 취지인 시노래 운동이 가져야 할 지역 확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포엠 콘서트를 기획. 세상의 모퉁이에서 잊혀져가는 간이역을 찾아가 이 시대가 크고 빠르고 높은 것만 추구하는 것에 반해 작고 여린 것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참여 시인으로 김해화, 윤임수, 박성우 등이 있다. 7월에는 ‘지뢰꽃’의 시인 정춘근을 주제로 7월 30일 월정리역에서 끊어진 철로의 복원을 기원하는 콘서트를 열 계획이며 이후 박관서, 안상학, 오인태 시인의 콘서트가 그 지역 간이역을 무대로 펼쳐진다.

위 세 가지 행사에서 파생된 문화물로는 창작곡(기악 연주곡, 팝페라, 시노래, 동요 포함) 400여곡과 그 외 ‘애니메이션’ ‘그림으로 읽는 시’ ‘영화로 읽는 시’ ‘사진으로 읽는 시’ ‘포토 에세이’ ‘춤과 만나는 시’ ‘판소리 시읽기’ ‘연극적 시읽기’ 등 시와 노래와 영상물과 춤,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복합적 결합인 ‘입체 시노래’ 등 단위 작품의 수가 천여점에 이를 것으로 추산 된다.

#### 06. 포엠콘서트의 약점에 관하여

1.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연 인원, 장비 미흡으로 완벽한 무대를 만들 수 없었음
2. 짧은 제작 기간으로 시인의 시세계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음
3. 일부 작업자들의 예술적 능력부족과 열의 부족으로 질이 낮은 작품도 있었음 특히 영상매체에 의한 저급한 작품은 공연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
4. 연출자의 빈곤으로 몇 사람의 연출에 의지 각 공연에 크게 변화를 주지 못함
5. 부족한 자금으로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해 시노래운동의 파급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포엠콘서트 창작물 데이터

	공연개요			창작물 개요								
	공연일	시인	공연명	신작시	창작곡	영상	애니	사진	그림	연극,입체	판소리	포토에세이
1	03년 6월 20일	고재중	그때 휘파람새가 울었다		8	1	1		1			
2	03년 7월 25일	복효근	누우떼가 강을 건너는 법	2	10					2		
3	03년 8월 22일	이정록	제비꽃 여인숙	3	9	1	1		1	1		
4	03년 9월 26일	박남준	숲 속에 서 있는 사람	2	11	2	1		1			
5	03년 10월 24일	나희덕	그곳이 멀지 않다	3	9	1	1		1			1
6	03년 11월 21일	장석남	왼쪽 가슴 아래께에 온 통증	3	12	1			1			1
7	03년 12월 1일		송년특집 포엠콘서트									
8	04년 1월 31일	김준태	다시 흠위에 서서	2	7	1		1	1			
9	04년 2월 28일	안도현	그 작고 하찮은 것들에 대한 애착	2	12	1	1		1			1
10	04년 3월 28일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3	9	2		1	2	1		1
11	04년 4월 24일	천양희	오래된 골목	4	10	2	1	1	1	1		1
12	04년 5월 1일	오월 詩	꽃진자리 피어나는 봄		9	2			1	7		
13	04년 6월 26일	최영철	춧불에게	4	11	1	1	1	1		1	1
14	04년 7월 31일	황인숙	자명한 산책	3	11		1	1	1	1	1	
15	04년 8월 21일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2	11		1	1	1			
16	04년 9월 25일	정일근	은현리 썩부쟁이	3	13	1	1	1	1		1	1
17	04년 10월 22일	박용철	탄생100주년 '떠나가는 배'		11			1	1		1	1
18	04년 11월 27일	이시영	바다호수에 모인 모든 벗들아...	3	11	1	1	1	1			
19	04년 12월 18일	함민복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3	10	1		1	2		1	
20	05년 3월 26일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3	14			1	1			
21	05년 6월 25일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4	14	2		1	2			
22	05년 9월 24일	김용택	섬진강	4	13			1	1			1
23	05년 12월 24일	이성복	뒹구는 돌은 언제 잠깨는가	4	14	2		1	1	1		
24	06년 3월 25일	정양	살아있는 것들의 무게	3	15	3			1	2	1	1
25	06년 6월 24일	도종환	부드러운 속도	4	14	1		1	1	1		1
				<b>64</b>	<b>268</b>	<b>26</b>	<b>11</b>	<b>15</b>	<b>26</b>	<b>17</b>	<b>6</b>	<b>11</b>

<사례발표4>

공공작업소 심심(公共作業所 心心)을 중심으로

김병수

-공공작업소 심심心心 소장

01. 공공작업소 심심 연혁

2006년

- 9월 .동문거리축제 예정
- 8월 .공간과 문화 전국 연구워크숍 예정
- 4월 .진안군 가막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컨설팅 진행중
- 3월 .문화관광부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주관단체> 선정-남부시장  
(봉기지 발행, 11개 학교 예술교육, 남부시장 옥상정원만들기, 점포갤러리)

2005년

- 9월 .동문거리축제
- 4월 .지역발전 포럼 계획  
- 4.23 1차 지역문화교육 포럼 예정 -
- 3월 .태조로 가로정비 사업 계획안  
.문화관광부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주관단체> 선정-남부시장

2004년

- 12월 .문화관광부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우수사례 선정  
- 매동 여름 캠프 -
- 10월 .전국 마을연대 세미나 개최 (공간문화센터 외 5개 단체 참여)  
.‘한옥마을 자서전’ 출간  
.‘한옥마을 달력’ 출간
- 9월 .‘동문 스튜디오’세미나 개최  
.동문거리 축제 2004  
- 주최 : 공공작업소 심심 / 동문축제추진위  
- 후원 : 전주시청 / 풍남동발전협의회 / 전북도1  
- 프로그램 : 길거리전시/미술학원전/거리공연/마임/퍼포먼스  
.환경부 동문거리 우수사례 선정  
.구도심 건축물 환경 개선 계획  
- 100만원 인테리어 Touch -  
.전주시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프로그램  
- 구도심의 반란 <달리는 비닐하우스> -
- 8월 .동문거리 신문 발간  
- 스튜디오 지원사업 -  
.사무장제도 계획

- 후원 진안
- 7월 .매동 여름 캠프 ‘빈집에서 놀기’
  - 마을 솟대 만들기 / 빈집에서 도예 체험 / 빈집 미술 작업 /
  - 마을 벽화 그리기, 페이스 페인팅 / 영정사진 촬영 /
  - 마을 다큐멘터리 작업 / 마을 축제 / 마을 답사:기록 / 마을 사람들 면담:기록
- .매동 여름 캠프 취재
  - 전북일보 7.22 / 새 전북 신문 7.21 / KBS / JTV 등 -
- .동문거리 신문 발간
  - 주거활성화 계획 -

- 6월 .동문거리 신문 발간
  - 동문거리축제 ‘색 잔치’-
- .동문거리 축제

- 1월~ ‘구도심 문화 연대’ 결성 추진
  - 공공작업소 심심, 강령탈춤전승회, 전주한옥마을마임축제,
  - 한옥마을사람들, 전주환경운동연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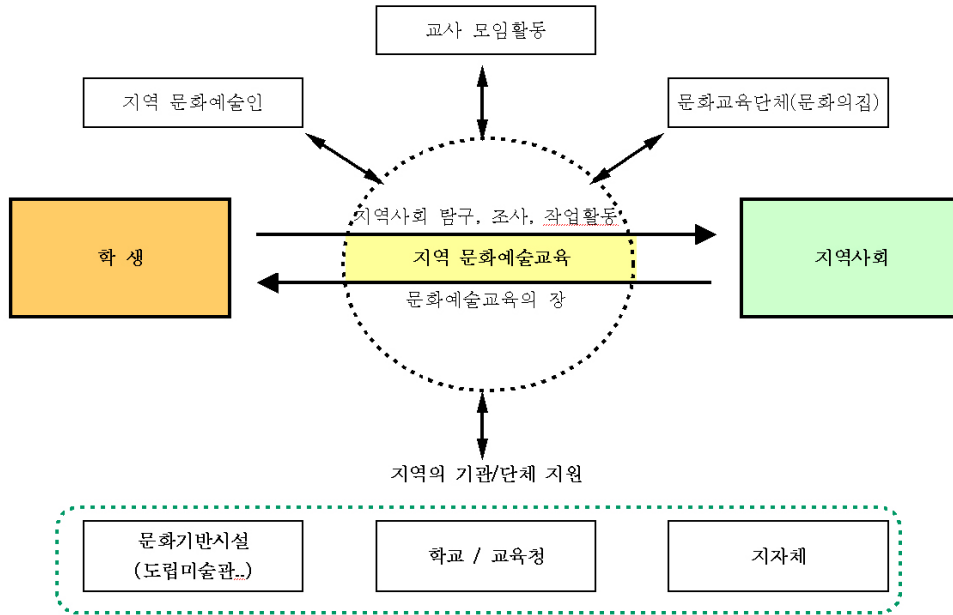
**2003년**

- 10월~ 2004. 2 .동문보고서 “느림으로 다가가는 일상”
  - 공공 작업소 심심 / 성균관대 신+ 도시건축연구실
- .동문거리 축제 2003
  - 빈집포 갤러리 展 덩어리 설치전 / 골방영상제와 함께하는 인디라페스티벌
  - 장소 : 내츄럴 맵
- .동문거리 신문 발간
  - 동문거리축제 2003 -

**2002년**

- 11월 18~28일 1기 공간 아카데미
- 6월 동문거리 축제 2002
  - 길거리 결혼식/그때 그 만화전/거리사진전/이주백 선생님 웹사진전 -
- 5월 동문거리 신문 발간
  - 동문거리 축제 2002 -
- 3월 동문거리 푸른약속 전북21 3개년 사업선정

■ 문화예술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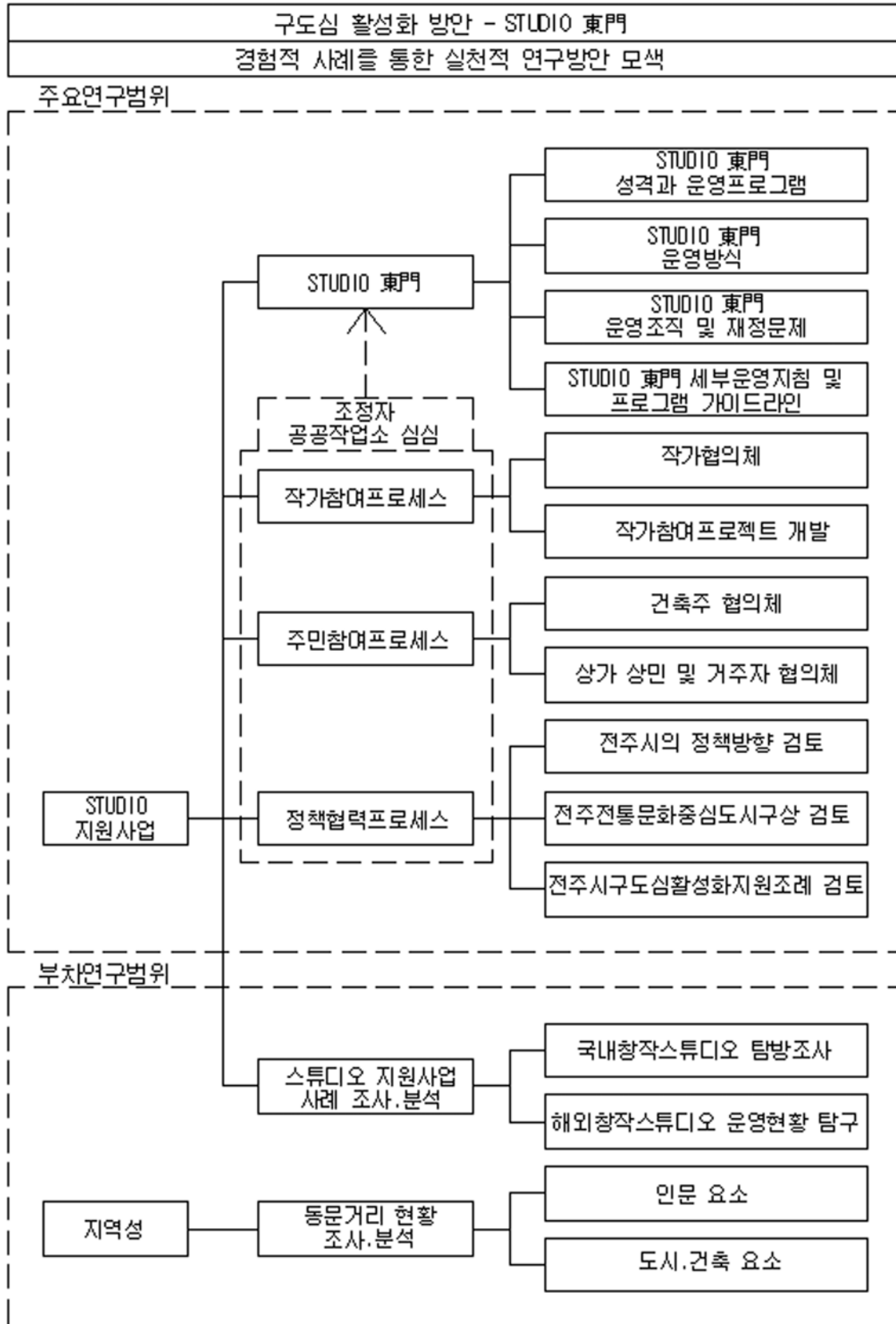


<그림1-1> 2005거리축제 - 작가간담회, 주민간담회



<그림1-2>

참여작가 - 2005년 소영권 송상민 남유래 외/ 2006 신가림, 지호 등.  
전주청소년문화예술교육 '남부시장또래탐사대' 활동.



<표1-2>연구의 범위

## 02. 전주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단 활동은

청소년들과 함께 전주의 지역탐사와 공간읽기 등을 학습함으로써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 자신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지역 사회를 바꾸어가는 주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육단의 지향점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이 장르 중심의 기능주의적 관심을 벗어나 향유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사고의 힘을 기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의 일상적인 공간을 문화예술 및 교육의 장으로 새로이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지역주체로서의 청소년들을 눈뜨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청소년 자신들의 문화를 스스로 건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환경과 문화 그리고 삶을 재인식하고 바꾸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의 작가, 교사 문화단체 등 문화와 교육의 각 주체가 연계하는 통합적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트워크의 방식은 기존의 종합센터 방식의 구태를 벗어나 창작스튜디오, 기능을 리모델링한 교육거점 만들기 등 다양한 형식과 운영 개선 방안을 실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 03. 문화예술교육의 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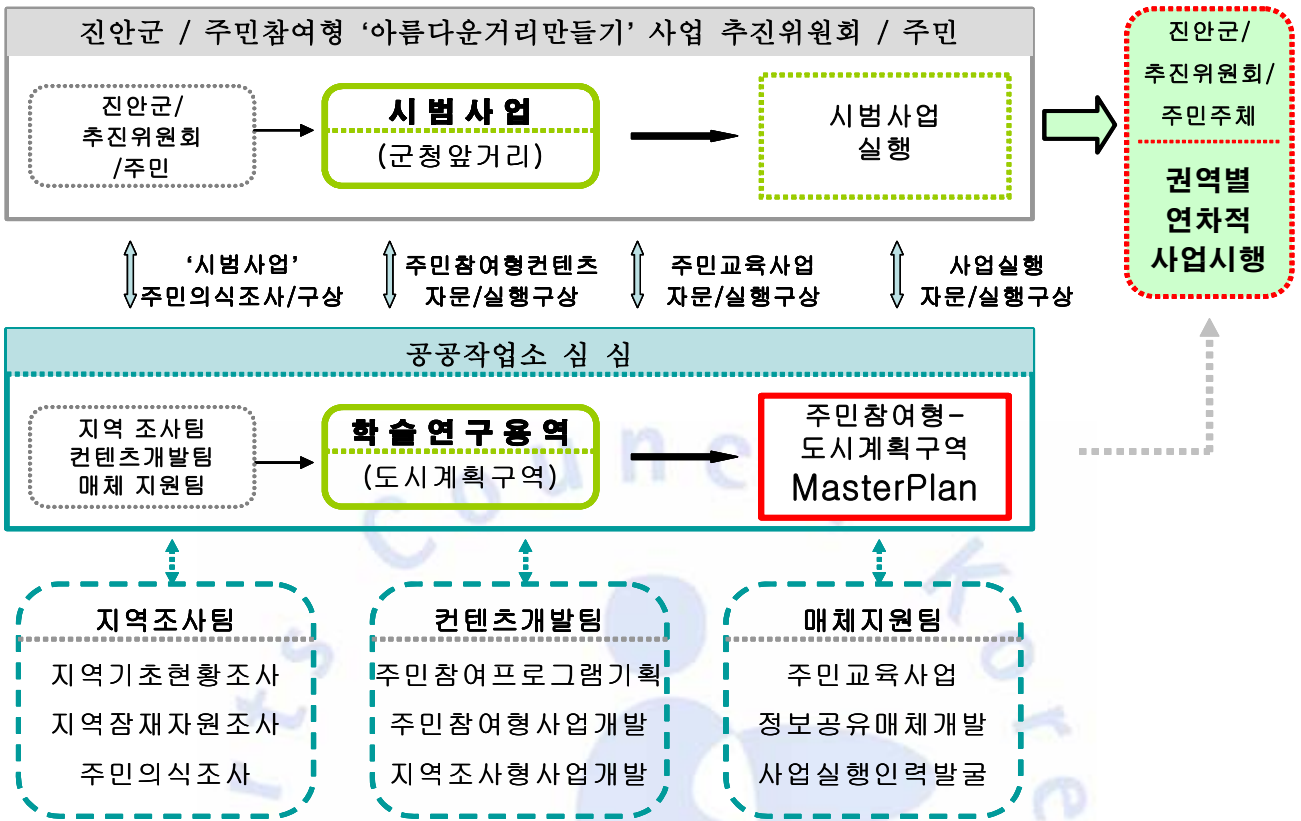
실재적 삶과 연관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뚜렷한 목적성을 지향하며 방식의 자율성을 구현 한다-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의 주도성과 실행능력을 중시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학생들이 사회구성원과 의사소통의 능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통합적 사고와 활동을 유도하는 다양한 소규모 단위의 실험적 학습들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하는 “공교육의 열린 틀을 제안하고 진행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 형태”를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 04. 남부시장 또래 탐사대는

남부시장이란 지역의 공간을 이해하며 아이들의 시각으로 놀이하고 체험하고 사고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체험 탐사학습 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청소년 남부시장 문화예술제를 통하여 그 경험까지도 공유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는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공간의 가치와 문화예술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참여자의 위치에서 참가자 스스로가 문화예술의 향유자이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 05. 재래시장 업그레이드 Agenda 및 실천대안만들기

남부시장은 동문거리와 함께 도시의 성장과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쇠락하고 소외되어 가는 전주 구도심의 대표적인 공간이다. 시장은 삶의 일상이 살아 있는 구체적 장소이자 역사적 공간이며, 교육, 문화, 공원, 마켓의 다면적 성장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생성 공간이기도 하다.



- 1) 지역조사팀  
지역기초현황조사사업, 주민의식조사사업, 문화·예술(가)/전문가를 통한 지역 유·무형 자원조사사업 등의 지역관련 기초조사 업무주체
- 2) 컨텐츠개발팀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사업, 지역자원조사를 위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등의 프로그램(사업) 기획 업무주체
- 3) 매체지원팀  
사업대상에 대한 현재의 이미지 검색 및 정보공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적 관점을 병행한 주민참여사업의 실행,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주체

<진안 가막리 녹색농촌 테마프로젝트.>

- 마을 기초조사
- 마을 재배작물 현황
  - 마을 공간 및 주변 자연환경(금강, 천반산등) 조사
  - 마을 인문조사(역사, 이야기, 인물기타등등)
  - 기초조사 후 마을 자료 분석 및 구축
- 마을 녹색체험 마을 주민 교육

- 마을기획 : 마을 공간, 프로그램, 마을 홍보 기획운영
- 생활문화 : 마을 술, 효소, 재배 작물 기타등등  
체험마을 및 문화예술 축제 프로그램 개발
- 빈집 문화예술체험 및 원두막 단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 마을 문화예술 축제 기획운영
- 주변자연환경(금강, 천반산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 마을 체험 및 문화예술 축제와 연계한 마을 장터  
녹색체험 마을 홍보 계획
- 마을 체험 및 문화예술 축제와 맞물린 가막 마을 마케팅 전략 수립  
(마을 이야기지도, 마을자서전, 마을 팸플릿, 홈페이지구성 기타등등)
- 전주등 도시지역 문화시설과 연계한 홍보(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 녹색체험 마을 환경 계획 및 시공
- 녹색체험 마을 운영 프로그램과 맞물린 환경정비계획 수립
- 마을회관, 마을 문화예술공원, 방문자센터, 원두막단지, 복개천 공간계획

